제5강 불연기연(不然其然)과 마고성

(1교시)

율려와 혼돈의 질서라는 원형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용도를 넓게 하면 패러다임이 된다. 동학에서 말하는 '혼원지일기'도 나왔다. 이 원형에 기초해서 율려, 우주의 질서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삼태극(三太極)의 춤'이다.
지난 시간에 1-3-5-7-9로 나가는 삼수분화와 2-4-6-8-10으로 나가는 이수분화를 말했다. 삼수분화는 북방 유목이동계의 샤머니즘 쪽에서 시작된 혼돈, 카오스적인 것이 더 강하고 코스모스적인 것이 좀 약하다. 물론 삼수분화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삼수분화와 이수분화가 기우뚱하게 결합된 것이다. 이수분화는 음양(陰陽), 사상(四象), 팔괘(八卦)처럼 짝수로 나가는 것으로, 음양론이다. 이것도 물론 그 밑에 삼수분화가 조금 약하게 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이 삼수분화론이 강하고 서쪽은 이수분화론이 강하다고 했다.
삼수분화론의 원류는 시베리아 바이칼(Baikal)의 샤머니즘으로부터 온 북방 유목계의 세계관으로 혼돈 쪽이 강하고, 이수분화론은 해양계 또는 남방계의 농경문화와 나중에 중국에 와서 음양론이 된 태극철학, 질서, 균형이 강하다. 이것들이 이중적으로 교호결합을 한다. 이중적 교호결합이라는 말은 변증법적인 통합과 지양하고는 다르다.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것은 테제와 안티테제가 부딪혀서 둘 다 자기소멸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통일이다. 제3의 새로운 물질, 사람, 역사의 상태다. 이중적 교호결합은 양자가 다 있고 자기를 유지하면서 숨어있는 차원이 드러난 차원을 제치고 개시(開示)하는 것(Offenbarung) 또는 종교적으로는 계시(啓示)하는 것(revelation)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혼돈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상의 제3의 테마로 설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사와 인류의 대변환에 부딪혀서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했던 이야기다. 마치 지중해를 장악했던 로마문명 시대가 무너지고 바뀐 일이 게르만족이 결정적 치명타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독교와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정신을 갉아 먹었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온 5만 년 전체가 뒤집히는 것이다.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의 통일이 일어나는 신인간(neo-haman)에 의해서 세계와 우주가 바뀌는 그러한 때다.
이미 여성성, 카오스가 중심이면서도 코스모스와 질서가 배합되어 있는, 혼돈과 질서 사이에 혼돈 쪽으로 기우뚱한 균형을 말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균형은 기우뚱하다. 기우뚱하지 않고 팽팽한 균형은 머릿속에나 있는 이른바 원리적 균형이지 삶에는 그런 게 없다. 사람이 보이기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모두 다 기우뚱하다.
여성성, 카오스 중심의 기우뚱한 균형을 이야기 했는데, 여기서 팔려사율(八呂四律)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또 율려라고 할 때, 여기서 율이 남성적인 것이고 여가 여성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새 시대의 주역, 한국의 주역인 정역이 김일부 선생에 의해서 공표될 때 이것을 뒤집어서 여율이라는 말을 썼다. 카오스가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배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돈의 질서다. 동학은 혼돈의 질서를 말한다. 즉 선천시대부터 이제까지

www.artnstudy.com

2800년 동안 동아시아와 중국을 지배했던 철학의 핵심, 산물이 태극이다. 음양태극. 이수분화. 정감록에 이재궁궁(利在弓弓)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재(利在)'는 어떤 비결처럼, 예컨대 난리가 나거나 외침이 있을 때 반드시 이재송송(利在松松), 즉 소나무 밑에 살아야 산다, 또는 이재가가(利在家家), 집 속에 살아야 산다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비결이야말로 민중적이고 지식인과는 거리가 먼 다수의 삶의 암시다.

우실하 교수가 지난 4년 동안 연변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북방문화를 공부하고 돌아왔다. 전부터도 그가 삼수분화론을 중심으로 한 이수분화론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신석기 시대 부여의 옥기(玉器)를 수천 점 조사해 왔는데, 그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구성의 원리가 '삼태극의 춤'이었다. 표현을 삼태극의 춤이라고 했다.
왜 삼태극이라고 하지 않고 삼태극의 춤이라고 했을까. 율려의 우주관이 삼태극의 춤이라고 우실하 교수가 썼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가 바로 삼태극의 춤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팔려사율 즉 여기서는 8-4, 이렇게 나가는데 북방 샤머니즘에서는 3, 9(3×3), 81(9×9), 이렇게 나간다. 이것은 북방 샤머니즘의 성수(聖數), 거룩한 수다. 이 81을 우주완성수라고 한다. 생명학 또는 우주생명학이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삼태극의 기본원리는 태극원기(太極元氣), 함삼위일(函三爲一), 음양동정(陰陽動靜)으로 되어 있다. 삼태극은 태극이라는 한 근원적인 기운이 셋을 포함하면서 하나 노릇을 하는데 음양과 동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통합의 원리다.
3-9-81을 북방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성수로 여기고 81을 지극한 완전수, 우주적 완전수로 생각한다. 우주적 완전수는 문화운동, 생명평화운동에서도 우주적 생명학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로 보고 있다.
이 81은 몽골 같은 곳의 민간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완전수로서 아홉이 아홉 번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쪽의 신화 가운데 '여든 한 가지 특징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여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한다. 사실 1-3-5-7-9에서 5나 7 같은 숫자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쪽의 거룩한 수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5, 7을 뛰어 넘어서 3-9-81로 나간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들어가야 할 것이다. 3-9-81이라는 삼수분화가 홑수, 혼돈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계라고 한다. 그러나 바로 1만4천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마고성(麻姑城)-마고(麻姑)는 우리 조상의 근원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흐오펜(J.J. Bachofen)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모계사회가 인류의 성인이 나타나고 우주의 질서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약 3천 년 전,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할 수 있다.
수운 선생의 진화론에 관한 짧막한 논문 "불연기연(不然其然)"이 있다. "아니다-그렇다". 우주적인, 사회적인, 인간 내면의 도덕적인 평화를 민족의 소원으로 세우면서 반드시 돌아가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만물질서의 표현어를 마고성이라고 했다. 그것을 되찾자고 맹세하고, 그 맹세의 증거로 몸이 전부 돌로 변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핵심 상징을 '다물(多勿)'이라고 한다. 다물은 고구려의 동명성왕이 정한 고구려의 국시(國是)다. 부여와 고조선, 그 이전에 있었다는 배달국, 그 이전에 있었다는 환인시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유인씨(有人氏) 시대, 그 이전에 있었다는 황궁씨(黃穹氏) 시대, 그 이전에 창희, 궁희, 그 다

www.artnstudy.com

음에 마고.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그 영토만큼이나 오래되고 깊고 넓은 정신의 회복이다. 이때에 팔려사율, 팔품사위가 이야기 되었고 나중에는 팔정사단(八政四壇)까지 드러났다.

우실하 교수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에 따르면 중국도 이수분화론이 강하고 삼수분화론이 약하다. 삼수분화론은 처음에 이야기만 하고 전개가 안 된다. 주역만 봐도 처음에 태극, 무극, 황극, 세 개의 극이 나오는데, 이야기만 되어 있지 더 이상 전개가 안 된다. 전개는 태극과 음양 쪽으로만 한다.
한민족의 문화사상적 전통에 북방 샤머니즘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밀쳐내면서 중국문명의 독자적 문호를 세운 것이 주(周)나라 때부터다. 주왕(周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을 거쳐 그 철학을 완성하는 사람이 공자(孔子)다. 이 흐름을 타고 내려오면서 북방 유목계를 숙청하고, 거기에 가담되어있는 사람들을 전부 소인이라고 부른다. 또 중국의 변두리에 있는 이민족들을 동이(東夷), 서융(西戎), 북적(北狄), 남만(南蠻), 모두 오랑캐로 부른다.
중국도 삼태극의 원리가 어쩔 수 없이 배어있다.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이 음악구조다. 중국에 삼통론(三統論)이라는 것이 있고 삼정론(三正論)이라는 것이 있다. 5음12율이 소위 유교적인 중국 한족 중심의 음악적 세계관인데, 여기서 북방의 음악체계가 5음의 체계를 살짝 벗어나니까 철학적으로 바꾸어치기 한 것이 삼통론, 삼정론이다. 12율려 가운데 황종(黃鐘), 임종(林鐘), 태주(太蔟),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으로 중요시 하는 데에서 삼태극이 고대 중국 문화에도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중에 이 삼태극이 태극-음양-5음-12율로 나가는 질서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 밀려나는데, 삼통론, 삼정론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삼태극을 약간 끼워 넣은 것이다. 예컨대 황종을 천통(天統), 인종을 지통(地統), 태주를 인통(人統)이라 하여 천지인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이 십이간지에서는 자시, 축시, 인시에 해당한다. 또 삼정론을 보면 천정(天正), 지정(地正), 인정(人正)이 있다. 이것을 중국이 숙청했지만 음악이란 우주의 질서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음악의 원리 안에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으로 삼통론·삼정론을 쓴 것이다. 이것이 12율려를 음양오행법이라는 이수분화로 따지지 않고 천지인 삼기라는 혼돈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한 증거다.

결론은 첫째, 삼수분화 즉 천지인 삼축을 중심으로 하는 혼돈 중심의 원리, 둘째로는 이수분화 즉 음양 이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중심의 코스모스, 또 삼분과 이분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태, 새로운 차원의 혼돈의 질서, 이것을 논리적 명제로 본다면 이중적 교호결합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이 자체가 바로 삼태극의 춤이다. 삼태극의 춤이라고 하면 중국의 태극음양론과 천지인 삼재론이 함께 있다. 동이족, 한민족의 전통은 전부 다 셋이다. 셋이 기본이고 둘이 붙어 있다. 삼태극의 춤이 우리가 따져온 바로 그것이다.

www.artnstudy.com